

백초월의 삶과 통도사

김광식*

• 목 차 •

I. 서언

II. 백초월의 강사 활동과 성격

III. 백초월의 통도사 인연

IV. 결어

*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전 동국대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42집 (2024년 12월), pp.9-42.

한글요약

본 고찰은 한국불교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백초월의 행적을 통도사의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다. 지금껏 백초월의 탐구를 통도사의 측면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아래의 관점에서 이 글을 집필하였다.

첫째, 백초월 강사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였다. 백초월은 벽송사, 범어사, 해인사, 옥천사, 동학사, 월정사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통도사에서 강사 활동을 찾아냈다. 백초월은 경전에 대한 실력이 뛰어났지만, 민족의식을 겸비한 것이 특별하였다. 그는 학인들에게 민족의식 고취, 독립 자금의 확보, 독립요원 발굴 등을 위해 강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백초월은 통도사에 다양한 역사를 남겼다. 그는 1914년에 강사, 통도사(구하)에서 독립 자금 인수, 김구하와 다양한 인연 등이었다. 특히 김구하는 백초월을 강사로 추천하고, 그의 은사의 문집과 자신의 금강산 여행의 문집에 백초월이 글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파문은 백초월의 시신을 청주교도소의 인근 공동묘지에서 인수하기도 하였다.

셋째, 통도사에서 산재되어 있는 근대기 불교 독립운동의 자료 수집을 강조했다. 지금껏 그 대상은 통도사 승려와 한용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백초월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 자료는 문건, 유묵, 증언, 보도기사 등이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초점에서 서술된 이 글이 근대기 통도사, 백초월의 역사, 김구하 및 한용운의 역사 탐구에 활용되길 바란다.

주제어

백초월, 통도사, 김구하, 한용운, 독립자금, 강원, 강사

I. 서언

백초월(白初月, 1878~1944)은 한국 근대불교의 독립운동사에서 뚜렷한 행적을 갖고 있는 승려이다. 그러나 2009년 백초월의 자료(태극기 등)가 진관사(서울, 은평구)에서 발견되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백초월의 존재와 활동은 불교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초월에 대한 내용은 일부 학자만 알고 있었기에 불교계 및 일반 대중은 백초월을 전혀 알 수 없었다.¹⁾ 요컨대 진관사에서 자료 발굴을 계기로 백초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래서 백초월의 생애, 위상 등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밝혀졌다.²⁾ 그의 행적이 조명되면서 한용운, 백용성과 같은 반열의 독립운동가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백초월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지속되어야 한다.

백초월은 전국 각처의 강원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그가 이끄는 비밀결사체 일심교의 동지와 함께 독립자금 모집에 나섰다. 때문에 그의

-
- 1) 다음과 같이 조영암, 이철교, 김창수, 김광식의 관심에 머물러 있었다.
 조영암, 「스님들의 항일운동」, 『불교사상』 1985년 3월호.
 이철교, 「항일 불교인 열전」, 『대중불교』 1993년 8월호.
 김창수,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민족운동」, 『가산지관스님 화갑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권, 1992.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 2002.
- 2)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一心教」, 『정도학연구』 16, 2011.
 _____, 『백초월』, 민족사, 2014.
 _____, 「백초월 독립운동의 성격 - 용성·만해와 비교하여 본 단면」, 『전자불전』 19, 2017.
 한철호, 「진관사 태극기 형태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이재수,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 사업」, 『정도학연구』 17, 2012.
 송명호, 「태극기 문화재 활용방안 -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2012.
 이동언, 「3·1운동직후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혁신공보』」, 『만해학보』 14·15, 2015.

행적은 전국 각 사찰에 산재하였다. 그 사찰은 옥천사,³⁾ 영원사, 벽송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법주사, 용화사(청주), 동학사, 봉선사,⁴⁾ 월정사, 봉원사, 유점사, 신계사 등이었다. 백초월은 사찰 강원의 강사 활동을 하면서 청년 승려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 요원을 발굴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때문에 백초월의 삶과 항일 독립운동의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찰을 주제로 하는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본 고찰에서 필자는 백초월과 통도사의 연고를 집중 탐구하려고 한다. 백초월은 1914년에 통도사 강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3·1운동 직후, 통도사의 고승인 김구하에게 독립자금을 인수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김구하 문집(1932)의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필자는 지금까지 천착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 역사의 실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II. 백초월의 강사 활동과 성격

백초월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강원의 강사이었다.⁵⁾ 이런 정체성을 유

3) 김광식,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옥천사」, 『마음사상』 15, 2023.

4) 백초월과 봉선사 인연은 백운(범어사), 설정(수덕사), 진관(비구니, 진관사) 스님이 증언을 했다. 백운은 백초월은 봉선사 연고를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진관은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은둔하러 떠날 때인 1905년에 봉선사에서 1박을 하였는데, 그때 봉선사에 있었던 백초월이 경허에게 법문을 요청했고, 노잣돈을 드렸다고 설정에게 언급했다. 그러나 경허는 법문을 하지 않았고, 노잣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설정은 백초월의 이야기(독립운동)를 수덕사 선원인 정혜사에서 노스님들(춘성, 금오, 금봉 등)의 대화시에 들었다고 하였다. 그후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발굴된 이후에, 진관스님(비구니)에게 백초월과 봉선사의 이야기를 청취하였고, 이를 필자에게 전달(2024.7.16.)하였다. 백초월 후손은 윤경(봉선사 주지)이 백초월의 독립운동 심부름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서, 윤경을 찾아갔으나 면담은 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백초월이 봉선사 강사로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지하면서 그는 독립운동에 나섰다. 백초월은 여러 사찰의 강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상주하면서 강의를 하였고, 간혹은 특강을 하였다. 1918년에 나온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는 다음과 같이 백초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初月白包光 靈源寺 白初月 金包光 … 중략 …
 以上諸僧 言其行履 以教宗 講說僞主⁶⁾

이것이 3·1운동 이전 백초월의 정체성이었다. 즉 강설을 위주로 하였던 강사이었다. 한편 필자는 백초월 연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집약하여 그의 생애사를 복원한 『백초월』(민족사, 2014)을 펴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백초월 강사 활동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903~1904 : 영원사 조실⁷⁾
- 1908 : 해인사 강사
- 1909 : 범어사 강사⁸⁾
- 1931~1933 : 동학사 강사

5) 고승의 이해, 연구는 연고 문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백초월은 지금껏 문증적 설명이 부재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백운(범어사), 설정(수덕사)으로부터 백초월은 봉선사 스님이라는 발언을 들었다. 추후 이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6) 『조선불교통사』 하권, pp.959-960.

7) 예전에는 강원의 지도자(강주)를 조실로 칭하였다. 지금은 선방의 큰스님, 사찰의 어른을 조실로 부른다. 그러나 예전에는 강원의 강백도 조실로 칭하였다.

8) 통도사 주지로 선출된(1929.5.26) 金雪巖이 1902년 1월부터 범어사에서 백초월에게 內典을 배우고 1904년 12월에 초등과를 수료하였다는 수행이력서가 있다.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사료집』 하권, 통도사, 2008, p.908, p.917. 그런데 설암의 비석에는 “을사년(필자 주, 1905)에는 범어사 강원에서 琴巴울사에게 四集科를 수료”라고 나온다. 『신편 통도사지』, 통도사, 2021, p.187.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백초월의 범어사 인연은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 1935~1936 : 봉원사 강사
- 1936~1938 : 월정사 강사

필자는 책을 펴낸 이후 10년간 자료 수집을 하여 백초월의 강사 활동을 추가로 찾아냈다. 그는 1907년 벽송사 강주, 1912년 통도사 강사, 1918년 해인사 지방학림 강사, 1920년대 후반 옥천사 특강 등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굴한 내용을 순서대로 살피겠다. 먼저 벽송사 강주 내용이다. 백초월이 벽송사 강주로 있었음은 벽송사가 현재 소장중인 『講會 主伴錄(碧松庵)』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講主 初月和尙 丁未貳月入同十月退
和尙 法名東照 堂號初月 姓水原白氏 南波和尙弟子也
本房大衆二十餘名也 他房來接亦同也 而但姓銜不記也
正丙上人爲講會之立繩 堂奇住雜則嶺運和尙也

이처럼 백초월은 1907년의 벽송사 강주이었다. 벽송사 강원은 조선 후기, 구한말에는 유명한 경학의 터전이었는데, 그런 강원의 강주로 백초월이 있었음은 상당한 시사를 제공한다.⁹⁾ 요컨대 그는 40여 명이 수강한 1907년 벽송사 강원에서 1년간 강사로 활동하였다. 백초월은 1939년에 벽송사에 들러 친필 유묵을 남겼는데, 그를 후손이 인수하였고, 2009년 진관사에 기증되어 보관 중이다.¹⁰⁾

그런데 백초월은 통도사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즉 1914년 2월 19일부터 1915년 2월 15일까지 통도사의 강사로 강의하였음이 당시 백초

9) 『智異山 碧松寺』, 벽송사, 2005, p.65.

10) 백초월의 친필 유묵을 보관한 당사자는 벽송사와 인연이 있는 재가 불자(김명언, 현재 작고)이었다. 백초월의 조카인 백락귀가 후의를 베풀어, 그 유묵을 인수하였다. 현재는 백외식이 진관사에 기증하여, 보관 중이다. 그 유묵은 1939년에 쓴 2점이다. 『3·1혁명과 백초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9, pp.68-69. 그는 受道軒과 政歇室이라는 작품이다.

월에게 수강한 박원찬(통도사 주지, 1938~1941)의 수행 이력서인 『歷史』에 나온다.¹¹⁾ 백초월은 통도사 강원에서 『반야경』과 『원각경』을 가르쳤다. 현 통도사 방장인 성파도 백초월이 통도사 강사를 하였다고 2023년에 발언하였다.¹²⁾ 즉 백초월의 통도사 강사 역임은 통도사 근대사에서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당시 주지인 김구하가 백초월을 통도사 강사로 초청한 연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필자는 백초월이 통도사 말사인 옥천사의 연고(입산 출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¹³⁾ 다만 불교계가 백초월의 탐구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백초월이 강사를 하기 직전, 강사로 활동한 인물이 한용운이었다는 것이다. 1912년 후반 한용운은 만주 탐방(1912.9~10) 도중에 죽다가 살아난 흥탄 저격 사건을 만나 귀국하여 범어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¹⁴⁾ 그는 1912년 12월부터 1913년 2월 무렵까지 범어사에 체류하였다. 그러다가 1913년 5월 25일에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낸 직전부터 통도사에 있었다. 즉 그는 김구하의 초청을 받아 1913년

11) 최두헌,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증원』, 담앤북스, 2023, pp.138-139.

최두헌, 「통도사에서의 독립 활동과 그 흔적」, 『동양한문학연구』 68, 2024, p.172. 박원찬 이력서인 『역사』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同(1913년)九月二十一日로부터同三年(1914년)二月十八日까지現在寺에서韓龍雲을師하고起信論을修了하고同(1914년)二月十九日로부터同八月二十日까지現在寺에서白初月을師하고般若經을修了하고八月二十三日로부터大正四年(1915년)二月十五日까지現在寺에서圓覺經을白初月을師하여 수료하고 ...” ()의 연대는 최두헌이 추가한 것이다.

12) 2023년 BTN의 성파스님 특집 대담(구국의 영웅 사명, 목탁을 놓고 창을 들다)에서 발언하였다. 필자는 그 이전에도 성파스님에게서 백초월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통도사 강사를 하였다는 말은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청취하였다.

13) 김광식,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옥천사」, 『마음사상』 15, 2023.

14) 김광식, 「한용운의 만주행과 정신적인 독립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2017, pp.119-131.

_____, 「만해 한용운과 범어사」, 『세계불학』 3, 2023, pp.206-207.

5월 19일부터¹⁵⁾ 1914년 2월 18일까지 통도사 강사로 있었다.¹⁶⁾ 백초월과 한용운을 강사로 초빙한 주역은 통도사 주지인 김구하 이었다. 그런데 백초월이 강사를 사직한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일단은 1915년 2월 무렵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그렇다면 백초월과 한용운은 통도사에서 만났는가? 만났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만해는 백초월의 존재를 그 무렵에는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백초월과 한용운 간의 인연을 서술한다. 한용운이 사직하였기에 백초월을 강사로 초빙한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이 통도사 강사를 할 때에 한용운의 차시봉을 1년을 하였고,¹⁸⁾ 1920년대 초반에는 서울 포교당에서 백초월의 강의를 들은 박문성(통도사 강원 1917년 수료, 독립유공자)은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겼다.

初月스님을 中央布敎堂에서 講義도 드렸다. 스님 말씀이 初月스님이 思想家며 韓龍雲스님과 親分 各別하셨다.¹⁹⁾

백초월과 한용운의 ‘친분이 각별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박문성은 한용운에게 영향을 받아 3·1운동 당시 해인사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²⁰⁾ 백초월과 한용운에게 인연이 있는 박문성의 회고는 신뢰할 수

15) 이선이,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소명출판, p.386의 연보. 만해가 1913년 5월 30일(음)에 통도사에서 도진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위의 줄고(2023), p.208.

16) 만해는 『기신론』과 『화엄경』을 가르쳤다. 경봉은 자필 ‘김정석 역사’에서 만해에게 『화엄경』을 8개월간 배웠다고 기술하였다. 최두현, 『경봉정석의 한시 연구』, 맑은소리 맑은 나라, 2018, p.26.

17) 박원찬은 1915년 2월 15일에 백초월에게 『원각경』을 수료하였다고 썼다. 백초월은 통도사 강사를 마치고, 그의 본사인 영원사로 복귀하였다. 그 당시 영원사는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복원불사를 진행하였다.

18) 『현대불교』 1호(1994.10.15), p.5, 「작가 정찬주가 만난 97세 보현행자, 문성큰스님」.

19) 백락귀(백초월 조카)의 「행적 문건」(1980년대 중반 작성)에 나옴.

있다. 다만 그 친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밝혀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백초월이 1918년 무렵 해인사 지방학림의 강사로 있었다는 회고가 있다. 그때 백초월에 배운 최범술(다술사)의 회고를 제시한다.

그리고 또 이 두 학교의 敎員을 말할 것 같으면 불교 관계로는 뒷날 애국운동에 투신하여 淸州 감옥에서 옥사한 白初月 스님, 연전에 작고한 金包光 박사, 지금 以北에 있는 金月宇, 金月宙 등 스님이 있으며, 일반 학문에서는 조학유, 김영주, 김서현 등 불교계 출신의 동경 유학을 거친 분들이었다.²²⁾

위의 최범술 회고에 의하면 백초월이 해인사 지방학림의 강사로 있었음은 분명하다. 백초월은 그의 재적 사찰인 영원사가 1911년에 화재로 소실되자, 화재 복구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영원사 재건 불사를 위해 화주 및 주지 소임(1916~1919)을 보면서 불사를 완료하여 1917년 11월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 이후에는 청주 용화사 포교당을 왕래하며 포교사로 활동하였다. 그 무렵인 영원사 낙성식 직후에는 그가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해인사 지방학림(강원)의 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백초월이 해인사 강사로 가게 된 전후 사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20) 그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데는 만해 한용운스님이 ‘육혈포 삼발이 승어독서삼천권(六穴包三發 勝於讀書三千券)’의 주제로 강연이 있었는데 만해스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탄에 맞아 흐르는 피를 막았던 피물은 손수건과 피물은 태극기를 걸어 놓고 강연을 했어. 내가 그때 만해스님의 영향을 받아 해인사에서 3·1운동을 주도했었지”라고 발언하였다. 최석환, 「인물연구 : 원적 문성대중사」, 『불교춘추』, 7호(1997.8), pp.15-16. 이 강연은 통도사 강원에서 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21) 한용운은 1918년 10월, 해인사 강원에서 특강(연제, 청년의 갈길)을 하였다. 이때 백초월은 교사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최범술, 「만해 한용운선생」, 『최범술 문집』 1권, 민족사, 2013, p.404.

22) 최범술, 「3·1運動과 海印寺」, 『효당 최범술 문집』 1권, 민족사, 2013, pp.393-394.

한편 백초월은 그의 고향²³⁾ 인근에 있는 옥천사(경남, 고성)에 가서도 특강 형식의 강의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백초월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여, 세상에 알린 조영암에²⁴⁾ 의해서 증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백초월이 옥천사 강원에서 3년간 강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1991년 6월 1일, 백초월 순국 비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할 때에 나온 말이다. 당시 백초월의 제막식을 추진한 백외식(백초월 종손)은 조영암에게서 “초월스님이 옥천사에 자주 오셨다”는 말을 들었다. 백외식은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초월스님은 왜? 뭐하러 오셨는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조영암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옥천사는 부자 절이어서, 초월스님은 군자금을 얻으러 왔지. 그렇게 독립자금을 얻으러 오는 과정에서 3년간 옥천사 강원에서 후배 승려들을 위한 강의를 하였어.²⁵⁾

즉 독립자금을 얻기 위해 옥천사 강원에서 3년간 강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건 기록은 없다. 1920년대에 옥천사의 강원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초월이 상주하는 강사인지는, 부정기적인 특강 강사인지는 단언하지 못한다. 필자는 현재로서는 후자인 특강 강사로 본다. 이런 내용은 필자가 추정하던 조영암이 월정사 강원에서 배울 때 당시 강사이었던 백초월에게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백초월이 옥천사에 와서 군자금을 타 갔다는 증언이 옥천사 승려 출신에게서도 나왔다.

23) 그의 고향은 경남 고성군 영오면 금산부락이다.

24) 조영암은 건봉사 출신으로 시인으로 활동했다. 김광식, 「조영암연구, 서설」, 『만해학보』 16, 2016.

25) 필자는 이 사실을 2016년 11월 17일(3개 지자체, 백초월 업무 협약식), 진관사에서 백외식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2023년 6월경에 다시 확인차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백초월 스님은 고성군 영오면 출신으로 승적을 옥천사에 두고 일찍부터 타향으로 떠났는데, 그 활동 무대는 주로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항일운동의 동지를 규합하고 민족대표 중에서도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지도하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지나친 고문 끝에 정신 이상의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전한다.

상해(上海)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로는 불교계에서 비밀히 군자금을 조달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차례 옥고를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출옥한 뒤에는 간혹 옥천사에 들러서 며칠씩 머물다가 훌쩍 떠나셨는데 그때마다 일본 경찰이 와서 떠난 곳을 물었으며, 노년에 이르도록 그 소식을 알지 못하였다.²⁶⁾

위의 내용은 『연화옥천의 향기』라는 옥천사 사지에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옥천사가 1999년에 펴낸 사지이다. 발간을 기획한 주역은 당시 옥천사 주지인 옥지성이고, 편집위원은 김상조·이용현 등 6인이었다. 필자는 당시에는 주지이었지만, 현재는 옥천사 산내 암자인 적멸보궁에서 수행하고 있는 옥지성을 면담하여, 사지 발간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였다. 일제하에는 옥천사 승려이었지만, 8·15해방 이후에는 해인대학교수로 활동한 김상조가 사지의 기획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편집은 1960년대에는 옥천사 승려이었지만 현재는 불교문화재 전문가로²⁷⁾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현(부산)이 담당하였다. 필자가 이용현에게 질문한 결과 위의 내용은 김상조가 서술한 것을 알았다. 때문에 『연화옥천의 향기』에 나온 백초월의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다. 필자는 백초월이 옥천사 강원에서 강의를 한 시점은 192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옥천사 사지에 나온 백초월 내용은 객관적인 기록에 의해 보강되어 역사적 사실로 정립되어야 한다.²⁸⁾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백초월은 인연이 있는 전국 각처의 사찰, 강

26) 『연화옥천의 향기』, 연화산 옥천사, 1999, p.42.

27) 경남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다.

28) 김광식,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옥천사」, 『마음사상』 15, 2023, pp.187-201.

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이처럼 그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순방, 강의를 하였음은 민족의식 고취, 독립자금 확보, 독립요원의 발굴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백초월의 강사로서의 성격, 위상에 대해서 살핀다. 백초월은 단순한 강사가 아니었다. 요컨대 당시 불교계에서 백초월의 실력은 공인되었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할 내용은 1915년 3월 31일에 개최된 조선불교 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常置員 제1회 총회의 결의 내용이다. 당시 그 총회에서는 중앙학림(동국대 전신)의 학교 위치, 직원 선정 등이 결정되었다. 그 직원의 선정에서 백초월이 강사로 결정되었다.

職員 選定 件에 對하야 左와 如히 定하다
 學長 姜大蓮(本所 委員長)
 學監 金河山(公州郡 甲寺)
 講師 白初月(咸陽郡 靈源寺)
 國語教師 宋憲奭
 算術教師 李命七
 寮監 吳利山(東萊郡 梵魚寺)²⁹⁾

이처럼 백초월이 중앙학림의 초대 강사로 내정되었다³⁰⁾함은 당시 그의 불교사상이 정립된 경학 실력이 상당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는 1916년 3월 24일에 개교한 중앙학림의 강사로 영원사 불사(화재 전소, 복구) 관계로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를 대신하여 당시 강백으로 유명한 박한영이 근무하였다.³¹⁾ 그는 소속 본사인 영원사의 재건 불사에 전념하는 연고로 부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대불교의 최고 석학인 박한영이³²⁾ 부임한 것에서는 백초월과 박한영의 실력, 위상이 같

29) 『조선불교진흥회월보』 3호(1915.4.15), pp.83-84.

30) 현재 전하는 기록이 없어 백초월을 추천한 인물,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31) 박한영이 취임한 과정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은 수준임을 은연중 말해 준다.

이제부터는 당시 고승인 한암(상원사)과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후학, 제자들에게 백초월을 찾아가서 배우라고 권하였다는 증언을 제시한다. 이는 은연중 백초월의 실력, 민족의식을 공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오대산의 선승인 한암(1876~1951)이 그의 상좌인 탄허에게 백초월을 찾아가서 경학의 수학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다.

탄허스님은 처음 시작할 때 3년간 묵언, 참선을 하시려고 하였지만, 한암 스님께서 “참선도 좋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부처님 교리를 알아야 후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노스님이 탄허스님에게 강원에 가서 일대장교를 마쳐야 된다면서 박한영, 진진응, 백초월 이 세 스님을 추천하셨어. 처음에는 탄허스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화엄사의 진진응 스님에게 가라고 권유했는데 탄허스님이 “스님이 책을 펴 주시면 배우지 딴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고 답변하셨어요.³²⁾

위의 증언에 나오듯이 한암이 그의 상좌인 탄허가 찾아가서 경학을 배우도록 권유한 인물로 박한영, 진진응, 백초월 세 강사를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남 진응,³⁴⁾ 북 한영으로 지칭된 것에 나오듯이 이들은 근대기 최고 강백이었다. 그런 최고 강백과 백초월이 함께 거론되었다는 것에서 백초월의 위상을 가늠케 해 준다.³⁵⁾

32) 김광식, 「만해와 박한영」, 『우리가 만난 한용운』, 장승, 2010.

_____, 「석전과 한암의 문체의식」, 『한국불교학』 70, 2014.

효 탄,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불교사상」, 『불교평론』 44, 2010.

종걸·혜봉,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임혜봉, 『석전 박한영』, 민족사, 2020.

33) 김광식,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2006, p.73.

34) 김광식,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이동헌」, 『대각사상』 18, 2012, pp.145-159.

35) 『조선일보』 1931.12.16, 「鴻山에 佛敎講演」. 이 보도기사에서는 백초월을 ‘거성’으로 표현했다.

백초월의 위상 및 민족의식을 가늠케 하는 증언을 한 당사자는 조영암(趙靈巖, 1999~2001)이다. 그는 건봉사에서 만해 한용운에게 배웠다.³⁶⁾ 그런 인연으로 만해의 거처인 심우장으로³⁷⁾ 찾아가서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배울까요?”라고 물었더니, 만해는 백초월을 찾아서 배우라고 조언하였다.³⁸⁾ 그래서 조영암은 1937년 무렵 오대산 월정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백초월을 찾아 2년간 경전 수학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조영암은 백초월의 행적과 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불교 잡지에 백초월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으며, 백초월의 순국비석의 문장을 쓰게 되었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백초월은 여러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한암과 한용운이 인정할 정도의 강백이었다. 그는 강백의 정체성에서 민족의식까지 소유한 독립운동가이었기에 그의 정체성은 특별하였다.

Ⅲ. 백초월의 통도사 인연

여기에서는 백초월과 통도사 인연의 뒀안길로 들어가려고 한다. 근대기 통도사 주지로 유명한 김구하(1872~1965)는 독립운동, 교육 및 포교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³⁹⁾ 여기에서는 백초월과 김구하의 연고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김구하는 1919년 승려 독립선언서

36) 박설산, 『뚜껑없는 朝鮮 역사 책』, 삼장, 1994, p.136.

37) 김광식, 「심우장의 어제와 오늘」, 『전자불전』 21, 2019.

38) 이는 필자가 진관사에서 백외식(백초월 종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다.

39)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정신과 방향」, 『문학과 종교』 22-4, 2012.

김광식,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대각사상』 37, 2022.

김응철, 「구하 천보의 불교사상 고찰」, 『대각사상』 37, 2022.

최두현, 「통도사에서의 독립 활동과 그 흔적」, 『동양한문학연구』 68, 2024.

서명자로, 상해 임시정부의 후원금을 적지 않게 냈다. 그 관련 1차 자료는 다음과 같이 2건이 있다. 김구하가 1951년에 작성한 「이유」라는 문건과 1952년에 통도사 대중에게 제출한 「진정서」이다. 우선 「이유」(1951) 문건을 제시한다.

理由

己未年 三一運動에 祕用件

通度寺 住持 在職中 同志하여 補助費用이 金壹萬參千圓也 其後 住持反對派 辛太皓 黃基祐 金元種 等이 日制時 司法官廳에 上海 臨時政府 送金하는 辭令書 受하였다고 告訴하여 調査가 甚한中 答辯하기로 十數年 在職中 社交와 機密에 流用이지 절대 獨立事에 送金아니라고 변명하여 罪는 免하여 스나 寺로서 金錢은 還推하였다 僅僅免하고 蟄伏하고 있다가 八月 十五日 解放後 大衆會席에 비로서 說明하고 寺金을 用한 貧道의 金徵出하여 還推 하라하니 尙今不報告로 檀紀四二八四年 辛卯年에 計算하니 如左

總計 一億八千一百九十五萬五千三百圓也⁴⁰⁾

위의 문건이 백초월에게 독립자금을 주었음을 해방 직후에 알린 최초의 자료이다. 이 문건에 백초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맥의 이면에서 그를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김구하는 일제하 자신의 반대파들이 자신이 사찰의 돈을 유용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제공하였다고 일제에 고발하였음이 나온다. 그래서 김구하는 거짓으로 사교비와 기밀비로 유용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 직후(1946) 김구하가 통도사 대응전에서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1952년에 통도사 대중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한 내용인데, 그는 독립자금 유용에 대한 일종의 해명서이다.

陳情書

본인이 年15세에 入山하여 于今 81년이라. 그간 학업에도 幾年間 光陰을

40)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양산시립박물관, 2019, p.157.

보냈지마는 本寺 明新學校 창립으로 26년간 無給으로 勤勞하였고 住持任도 14년간 薄之無給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도 不顧私而但爲公 經過가 于今 66년이라 소유재산은 囊無一錢이오 甌無貯粟이라. 年當 81에 四大가 쇠약 하고 兼爲耳聾하니 可謂 魂不散之死人이라. 崔住持 취임후 3차 진정하였더니 그 답이 매년 師佐佛糧과 需用費 每個月 10萬円씩 衆論決議하였다 하기 垣垣信之安心하였드니 今已 佛糧米는 禪糧에 并食케 되니 近九老身으로 일체 행동이 精進 首座와 并同치 못하니 何敢禪糧에 參席乎아. 此 請求도 대단 미안하오나 木石不接으로 할 수 없어 百計一事로 如此請求하니 不顧人事體面하시고 居山 數十年에 爲寺而居타가 老境에 移他도 不思之事이오 寺의 체면도 박약이오니 衆論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伏祝伏望하니이다.

佛紀二九七九年 六月 二七日

龔老 九河 謹識

教務院 僉德

大衆 座下

返還 請求書 理由

一金 一億九千九百五十萬五千三百圓也. 右는 去己未年 3·1사변에 本人이 通度寺 住持 재직중 運動 기밀비로 用한 것이 一萬三千圓인 바 右寺 僧侶 中 反動分子 등이 日本 司法官廳 思想犯으로 高소하여 徵出한 바.

金海 大地面 本人의 소유토지 畝 4,500坪

梁山 下北面 本人의 소유토지 畝 2,000坪

計 6,500坪 現時價 每坪 3,000圓

自己未年 至己丑年까지 30년간 每年 元口料 30石씩 計 900石 現時價 二十萬圓

當時 殖産銀行 借金 二千圓(30년간 本利並).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中 계산이 一億九千九百五十萬五千三百圓也.

檀紀 四二八五年 八月 十七日

通度寺住持 及 職司與教務員 僉衆

證

一金 5,000圓 安昌鎬 國務總理時 上海서 送人持去

一金 2,000圓 白最勝(初月) 京城서 革新公報社長時 持去

- 一金 3,000円 李鍾郁 軍資金 收集 送人持去
- 一金 1,000円 鄭寅燮 獨立運動 卽接持去
- 一金 500円 吳利山 上海去時 梵魚寺와 공동보조
- 一金 500円 張載輪 獨立運動 卽接持去 東來
- 一金 500円 辛定欽 獨立運動 卽接持去 通度
- 一金 300円 金包光 上海去時 路費로 給 京城
- 一金 100円 鄭 鐸 獨立運動 參加時持去 通度
- 一金 100円 梁萬佑 同時 觀光 持去

『通度寺 會議錄綴』⁴¹⁾

김구하는 자신이 독립자금으로 제공한 내역을 위와 같이 통도사 대 중에게 1952년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제공한 10건의 내용이다. 안창호(임시정부), 백초월(영원사, 진관사), 이종욱(월정사), 오리산(범어사), 김포광(영원사), 양만우(통도사) 등의 세부 내역의 금액, 수취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렇듯이 김구하는 3·1운동 직후 상해 임시정부에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였다.⁴²⁾ 백초월의 경우 서울에서 『혁신공보』 사장 시절인 1919년에 2천원을 준 것으로 나온다. 김구하는 그가 위와 같이 제공한 독립자금의 내용을 『불교신문』 편집부장을 역임한 박경훈(1934~2022)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박경훈은 이를 1980년에 펴낸 『근세불교백년』에서 기술하였다.⁴³⁾

이런 사정은 2005년에 통도사 주지(현문)가 그 관련 영주증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사실로 입증되었다.

41) 『韓國佛教最近百年史編年』 제1권, 민족사, 1987, 「5. 사회참여」, pp.35-36.

42)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43)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중앙일보·동양방송, 1980, p.182. 박경훈은 자신을 찾아온 백초월 조카인 백락귀에게 자신이 이 책에서 기술한 김구하 독립자금 내용은 김구하가 생전에 밝힌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구하스님이 일제시대에 비밀리 독립운동자금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구하스님 입적 4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24일 공개한 이 자료들은 통도사 주지였던 설우 스님이 주지직에서 은퇴한 구하(1872~1965) 스님에게 써준 독립자금 관련 영수증 5장과 안창호 선생 등 10명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나타내는 ‘사변시(事變時)·3·1운동을 지칭’ 출금증’ 등이다.

‘중요문건(重要文件)’이라고 쓰인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여진 이 문서는 구하스님이 독립운동 기밀비로 총 1만3천환을 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우 스님이 구하스님에게 1927년 써준 영수증들은 구하스님의 재산을 모두 통도사에 내놓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빼돌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변시 출금증’ 문건에는 ▲안창호 선생 임시정부 국무총리 재직시 5천환 ▲초월 스님 경성 혁신공보 사장 시절 2천환 ▲이종욱 당시 총무원장 군자금 수집 때 3천환 ▲온천서 독립운동가 장인섭에게 1천환 ▲범어사 공동으로 상해서 500환 ▲동래서 독립운동가 장래륜에게 500환 ▲통도사서 독립운동가 신정훈에게 500환 ▲김포광에게 500환 ▲정탁의 독립운동 참여에 100환 등의 독립자금 지원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문 스님은 “구하스님이 자신의 제사에 쓰고자 남겨놓은 김해·양산의 토지 6천 500평의 제우담을 모두 처분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며 “이 자료들은 2003년 11월경 월하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거사 재평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곧 있으면 3·1절이라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생전에 월하스님이 왜 이 귀중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자료 공개는 스님의 친일 행적에 대한 미화보다는 스님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남기신 ‘절대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등의 유훈을 놓고 볼 때도 스님이 결코 단순히 친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⁴⁴⁾

위의 보도기사에 김구하의 독립자금의 제공에 연관된 전후사정이 자

44) 『현대불교』 2005.2.24, 「통도사, 구하스님 입적 40주기 맞아 영수증 등 공개」.

세하게 나온다. 요컨대 김구하가 백초월에게 준 독립자금은 분명하였다.⁴⁵⁾

한편 백초월이 김구하에게 독립자금(2천원)을 받았다는 정황은 국가 기록원 문서에도 나온다. 즉 통도사 사재 장부(1924)에 ‘차용인 백초월’이 나와 있다.⁴⁶⁾ 일제 기록에는 ‘정신병자 백초월’로 나오거니와, 이는 백초월이 일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을 때 정신병자 노릇을 하였던 정황을 말한다. 그런 백초월에게 자금을 준 인물이 김구하이다. 그리고 역시 국가기록원 문서에 나온 것으로 1924년 6월 30일 양산경찰서가 김구하 사건을 경남 도경찰부에 보고한 자료 「에원서 및 고소사건 수사에 관한 건」⁴⁷⁾ 있다. 이 사건은 통도사 주지에 다섯번째에 도전한 김구하의 통도사 사중 재산 누락이 발견되자, 김구하 주지 취임을 반대한 사건이다. 누락된 재원(당시 돈, 1만 3천원)의 일부는 백초월에게 제공한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대정 8년(1919) 이후 排日運動者 朴廬英, 白初月과 연결하여 上海 反政府에 巨額の 公금을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정 8년(1919) 8월 백초월이 함양군 靈源寺 주지에 재직 중 화재를 입어 영원사 복구를 위해 백초월의 간청에 따라 그에게 2천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上海 反정부에 송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⁴⁸⁾

김구하가 백초월에 자금 2천원을 제공한 사실은 통도사 대중들도 알

45) 『불교신문』 2021.3.9, p.10, 「통도사 독립운동」.

46)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 사료집』 하권, 통도사, 2008, p.371.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사찰관계』, 「13. 통도사 사재장부에 관한 건」.

47)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사찰관계』, 「14. 에원서 및 고소 수사 사건에 관한 건」, p.684.

위의 책, 하권, pp.420-432.

48) 위의 책, p.423. 이 문장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통도사에서 번역, 기재한 것이다.

고 있었다. 백초월에게 빌려준 증서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⁹⁾ 당시 경찰은 이 사건에 휘말린 백초월을 만나 의견을 들은 「청취서」와 「백초월 소재 수사에 관한 서류」를 사건 보고서에 첨부하였다.⁵⁰⁾ 그러나 첨부된 그 문건은 전하지 않는다. 당시에 그 돈이 독립자금(김구하 반대파 주장)인지, 불사를 위한 돈을 빌려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919년 8월은 영원사 불사가 종료된 이후이였기에 영원사 복구 비용이란 명분으로 백초월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백초월이 받은 독립자금이 1회(2천원)에 그쳤는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도 흥미로운 과제이다.

한편, 최근 김구하의 구하의 친필 자료인 『九河歷史』를⁵¹⁾ 분석한 논고에서 이 내용이 밝혀졌다.

九月頃에白初月禪師가革新公報社長으로數次來論에(金二千円補助)其他有志諸氏が
數數來言에數數百円이라在次身不動이나心常逐助而已이오(申尙院上海來一一不記枚舉)⁵²⁾

즉 백초월이 직접 와서 군자금을 부탁하여, 응하였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구하는 여타 독립운동가들에게도 군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는 김구하가 백초월에게 군자금을 준 사실을 접하였지만 그 연유,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1914년에 백초월이 통도사 강사를 하였음에서 백초월과 김구하는 서로 간에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신뢰가 있었

49) 위의 책, p.434.

50) 위의 책, p.437.

51) 이 자료는 김구하의 친필 기록으로 1872년 출생에서부터 1942년(71세)까지의 핵심적인 일들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 위의 최두헌 논고(2024), p.166.

52) 위의 최두헌 논고(2024), p.166 각주 8에서 재인용.

기에 독립자금을 요청하고,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영축문집』을 기획한 장충식(동국대)도 서술하였다. 『영축문집』의 말미에 수록된 「靈鷲山の 큰 별 九河 스님」이라는 행장을 서술하면서 백초월 독립자금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내용에 본 고찰과 유관한 것이 있다. 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님의 對 社會的 기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양면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 親口을 하기도 하셨던 점이다. 특히 당시 白山商會 安熙濟에게 거액의 독립자금을 주셨고, 그 외에도 白初月, 金尙昊, 梁大應을 비롯하여 동래의 鄭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립자금을 전달하셨으며 그 내용은 鉢盂의 설포 전대를 뒤집어 소상하게 기록해 두셨다. 그러나 해방직전 일제의 압박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유수한 이들의 책과 사물을 조사한다 하여 제자 月下스님은 노스님에 관한 많은 자료를 불태우고 말았으니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또한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이때 사용된 군자금 가운데는 상당액의 사중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주지직을 사임하지 못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지하기도 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후 김해에 있던 스님의 私田 30여 마지기를 팔아 충당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광복 다음 해에 스님이 대웅전에서 대중 앞에 직접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⁵³⁾

이와 같은 내용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즉 그는 통도사 역사에서 김구하와 백초월의 인연 관계는 널리 알려진 역사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백초월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백초월의 종손인 백외식을⁵⁴⁾ 만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백초월과 김구하에게 군자금을 주었다는 울주군에서 정미소를 하였던 분의 아들에게 들

53) 『鷲山文集』, 영축총림 통도사, 1998, pp.628-629.

54) 1943년생으로 백초월의 종손이다. 부친 백락귀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초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은 이야기를 필자에게 털어 놓았다.

울주군에서 정미소를 하는 사람이 초월스님에게 군자금을 주어서 집안의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다는 분의 아들(75세, 최씨)이 내가 부산에 있을 때에 찾아 왔어요. 그 사람 말이 자기 집의 뒷마당에 있는 대나무밭에 향아리를 묻어 놓았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돈을 집어넣으면 몇일 후에 그 돈이 없어졌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는 ‘돌중’으로 말했대요. 그 돌중이 초월스님이라는 거예요. 초월스님은 머리도 약간 기르고, 승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군자금 준 것을 대나무 밭에다가 암호처럼 돈을 준 명단을 작성해 놓았는데 누가 밀고를 할 것 같아서, 들통이 날까봐 불안해서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명단에는 초월스님과 통도사의 구하스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초월스님처럼 독립유공자를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 나를 몇 번 찾아왔어요. 93년 12월인가, 94년 초에 왔어요. 두 번째 방문을 할 때에 자기 아버지의 공적을 적은 것을 갖고 왔는데 A4용지로 일곱 장이나 되었는데 내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초월스님을 돌중이라고 나쁘게 표현하고, 내가 유공자를 만들어 줄 수도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⁵⁵⁾

이 증언을 신뢰하면 백초월은 일방적으로 구하에게 군자금을 요청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한 동지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증언(6하원칙, 사실 확인) 채록에 나서야 할 것이다.⁵⁶⁾

한편 김구하는 은사인 성해의 법을 잇고, 1899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통도사 기반 재정비에 나섰다. 이렇듯이 통도사 재정비를 단행하던 1914년에는 성해의 수연 잔치가 개최되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인사의

55) 2024년 2월 11일, 전화 인터뷰. 2024년 2월 25일, 진관사(진관스님 선양회 발족식)에서 보완 인터뷰. 필자는 백외식에게 들은 그 정황을 『백초월』(민족사, 2014), pp.131-132에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56) 군자금 제공자는 구하의 안내가 있어, 초월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글과 외지에서 기고한 글을 모은 『성해선사수연집』(1914)이 김구하의 주관으로 발간되었다. 그 서문을 백초월이 지었는데, 그는 서문을 쓴 전후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학술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식견 없는 무리도 아니네. 흡사 중류의 자질을 받아 태어난 듯하나 최상승의 경계를 드러낼 수 있었지. 바라보면 채우지 않은 듯 해도 어울리면 진실하게 알았어라. 이 사람이여, 참으로 뭐라 일컬을 수 없도다. 우리 성해선존(聖海禪尊)은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되어, 도(道)에 뜻을 둔 채 진실하고 미쁘게 지냈다. 마음 씩씩이는 말씀을 은미하게 하고 낮빛은 남을 배려하며 이해했으며, 굳은 의지로 견디며 마음속 깊이 인자로웠다 … 중략 … 어느 날, 구하씨(九河氏)가 나에게 서문으로 말 한마디를 지어 달라고 했다. 나는 글을 탐내는 사람은 붓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융성한 대우에 오히려 글을 짓기 어려운 나머지, 행여나 지어지길 바랄 뿐이었다. 끝내 이리저리 생각하며 날을 보내다가 비로소 교학과 행실을 서술하였고, 이에 앞서서 멀리 절 밖에서 들려온 성해선존에 대한 칭송을 이 단락에 아울렀다. 불찰대본산 강사 백초월 삼가 적는다.

불기 2941년 중구일⁵⁷⁾

백초월은 통도사 강사를 할 때에 구하의 부탁으로 그 서문을 지었음을 밝히고, 성해의 인품을 표현했다. 이렇듯이 백초월이 그 시집의 서문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김구하와의 친근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⁵⁸⁾ 김구하와 백초월의 인연은 김구하의 『金剛山 觀賞錄』 발문을

57)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寔非學術之衆而亦非無識之儔如橈中流之資而能顯最乘之域望之不盈和之有實斯人也固難得而稱矣當山聖海禪尊妙年剃染志于道誠信之用性也微言恕色堅忍深仁...(中略)...日九河氏命余弁一言余意貪文者所難忝毫而崇遇猶難幸其望耳肆三思費日始述教行乃前於遠外所聞海尊香音并此段云爾 佛刹大本山講師白初月謹誌佛降世二九四一年重九日”. 김구하의 『歷史』에서 발췌한 글이다. 위의 최두현 논고(2024), p.173.

58) 백초월은 구하의 회갑연에도 수연시를 적어 축하를 하였다고 한다. 위의 최두현 논고(2023), p.119. 필자는 최두현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최두현은 그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다. ‘구하역사’ 혹은 ‘금강산록 초안’에 수

쓴 것에서 더욱 고양되었다. 김구하는 1932년 3월 13일, 회갑을 맞아 회갑연을 가졌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130여일 동안 금강산 여행을 떠났다. 김구하는 금강산 여행을 가서 지은 시, 기문 등을 정리하여 즉시 문집을 만들었다.⁵⁹⁾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책인 『金剛山 觀賞錄』의⁶⁰⁾ 발문을 백초월이 쓴 것이다. 여기에서 백초월이 쓴 발문의 전문을 제시한다.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요 세계의 경승지이다. 이른바 은선대의 十二瀑布와 해금강을 비롯한 七金剛, 만물의 모습을 띤 신만물·오만물 등이 있다. 구라파의 아름다움이나 중국 廬山과 劍閣의 장관이라 할지라도 어찌 여기만 하겠는가. 허물며 금을 새기고 옥을 수놓은 듯하며,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며, 공중에도 장엄하고 해안에도 수를 놓았으니 詩聖인 단테라 할지라도 가히 팔장만 길 것이요. 摩詰 화백이라도 마땅히 붓을 멈출 것이니라. 「가히 시와 그림으로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이 실로 거짓말이 아니로다.

鷲山스님은 일찍이 출가하여 佛典과 外典을 두루 통달하고 格外禪을 참구하였으며, 대본산 통도사의 주지를 다섯 차례 역임하면서 만 15년 동안 사찰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절을 보수하고 중흥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포교 또한 시대에 맞게 하였다. 나아가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모든 일을 잘 추진하였으며 그 바쁜 속에서 깊고 묘한 불사를 많이 행하였다.

그 후 비로소 금강산 만이천봉을 조용히 유람하여 참된 경치를 다 어루만지고 아름다움을 되씹었다. 이를 되뇌여 명문장으로 글을 쓴 것이 이 한 권에 가득하다. 만폭동의 보덕굴과 중내원의 미륵봉, 구룡연과 팔담, 중향성과 묘길상 등 한결같이 읊고 감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혹은 장안사

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9) 이경순, 「1932년 통도사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대각사상』 37, 2022.

60) 『鷲山文集』과 함께 번역하여 출간한 『금강산관상록』은 『금강산록초안』의 내용을 근간으로 1998년에 통도사에서 출간하였다. 1998년에 발간된 『금강산관상록』은 1932년 『금강산록초안』의 내용을 편집하고, 금강산 관련 역대 명시와 유점사 사적을 추가하였다.

에서 발우를 씻고 나서 혹은 유점사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영원동을 탐방하여 망군대를 바라보았으며 수미암을 거슬러 올라가 수미탑에 예배하고 백운대의 금강못 물과 신계사의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시를 지었다. 더 나아가 이전 사람들이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승지까지 탐방하여 선배들이 말하지 못한 시를 지었다. 시마다 전단향이 어려 있고 조각조각 금지팡이의 건실함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기이하다.

이때 나는 영축산에 이르러 세존 사리탑에 예배드리고 축원을 기원하였다. 축산스님이 풍악산으로부터 돌아오니 늙은 石郎을 비롯하여 차례대로 배알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 얼굴을 보니 위엄이 있고 법도가 남달랐다. 아마도 남보다 빼어나고 특별한 것을 명산이 주었으리라. 이에 유상록을 살펴보니 가히 고요한 물결 속에서 진주를 주운 듯하고 난초의 향기로 엮어 놓은 것이었다. 며칠 지나 발문 쓰기를 청함에 사양할 바를 몰라 ‘예’라고 답하였다.

왜 그렇게 답을 했는가? 답을 하노라. 나라에서 아홉 술을 주조함에 있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다시 그 술에다 완료한 데 대한 공을 새긴다. 아아, 스님께서 회갑 잔치를 마치고 금강산을 찾아 좋은 시를 지었으니, 가히 대기만성이 아니리오? 내가 발문을 더하는 것은 완료한 공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찌 ‘예,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月牙 崔月峰 공이 먼저 서문을 짓고 내가 끝에 발문을 붙이니 가히 두 날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발문을 맺노라.

임신년 구월 구일

不咸山人 大龜堂 白最勝 跋文⁶¹⁾

여기에 나온 龜堂과 最勝은 백초월의 별호이기에 위의 발문은 백초월의 글이 분명하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백초월은 1932년 9월 초, 통도사를 법문하려고 방문하였다. 그 당시인 9월 9일, 통도사는 개산조 기념 제사를 맞이하여 법회를 가졌는데, 백초월은 금강계단에서 대중 200명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였다.⁶²⁾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9월 1일에

61) 白最勝, 「跋文」, 『금강산 관상록』, 통도사, pp.411-415. 원문은 한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62) 『불교』 101·102합호, p.75, 「通度寺開山祖紀念祭日」.

통도사에 돌아온 김구하는 백초월에게 자신의 여행기에 대한 발문을 써주기를 요청했다. 김구하는 통도사 강사를 역임하였고, 강백으로 유명한 백초월에게 여행 기간에 썼던 글을 보이며 발문을 청했던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백초월에게 유람록의 발문을 청했다는 것은 백초월과의 돈독한 관계를 말해준다. 이 발문에서는 금강산 여행의 감동이 식기 전에 책으로 엮으려는 김구하의 의지와 백초월과의 신뢰가 매우 깊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백초월은 통도사와 많은 연고를 가졌다.⁶³⁾

이렇듯이 백초월은 통도사의 김구하와 많은 인연을 가졌다. 그러나 백초월은 전국을 순방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4년 6월 29일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8·15해방 직후 백초월의 시신을 인수하려는 일단의 인사들이 있었다. 그중에 김구하와 이종욱 일행은 1948년 봄 무렵, 청주교도소를 찾아와 시신이 묻힌 공동묘지를 찾아 시신을 인수하였다.⁶⁴⁾

한편 백초월의 조카인 백락귀는 1980년대 초반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이 시작되자, 이번 기회에 백초월의 독립운동의 행적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백초월을 만났던, 안다고 하는 승려 및 재가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백락귀는 통도사에 가서 김구하의 상좌인 월하(통도사 방장, 조계종 종정 역임)를 만났다.⁶⁵⁾ 백락귀는 월하를 만나고 나서 만든 ‘행적 문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63) 성과(통도사 방장)는 백초월을 “초월스님이 고성 출신인데 진주지역의 통도사 말사에 살았고, 통도사에도 왔다 갔다 한 스님”이라고 증언했다. 김광식, 『청백가풍의 표상』, 벽안문도회, 2013, p.167. 통도사 말사는 옥천사를 칭하는 것이다. 옥천사는 현재는 쌍계사 말사이지만, 일제하에서는 통도사 말사이었다. 백초월의 입산 사찰은 옥천사이었고, 그는 옥천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독립자금을 얻으러 옥천사에 자주 왕래를 하였다. 김광식,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옥천사』, 『마음사상』 15, 2023, pp.188-215.

64)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p.50의 각주 119 참고.
김광식, 『백초월』, 민족사, 2014, p.198.

65) 그 시점은 특정하지 못한다. 1983~1984년경으로 보인다.

前住持 金九河스님 上佐 말씀이 金九河스님 記錄文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안 나온다면 받아 줄 때에 記錄한 것은 倭警 때문에 燒失되었다고 말하여줌. 月下스님 말씀이 白初月스님 月精寺 多年間 계시면서 通度寺에 金九河스님 과 만이 居處하였다고 함

이렇듯이 월하도 백초월은 김구하 인연 때문에 통도사에 많이 거처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백초월의 시신을 인수한 대상자의 일원이 김구하이었음은 1980년대 중반에 백초월의 유족도 알게 되었다. 그 전후 사정은 아래의 문건, 「故白初月大禪師光復行蹟抄」(1991)에 나온다.

1948년 初春頃 강원도 月精寺 주지 李鍾郁스님 양산 通度寺 주지 金九河스님 외 篤志家 年老層 著名人士 4, 5명이 三회에 걸쳐 형무소를 探問 확인하고 제반 절차 具備書類를 갖추시고 현재 생존자이신 당시 형무소 名籍係長이신 全仁植씨의 인도하에 금천동 묘소를 확인시키고 인사들은 遺骸를 移葬하여 가시고 구비서류는 보존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망실 소실되고 당시 김구하스님 이종욱스님 諸 人士들이 他界하시고 알 길이 없어 故人의 전국 연고지인 사찰로 다니면서 탐문하였으나 歲久年深이 되어 알 길이 없음이며 어디론가 잘 安葬되어 있겠지 하는 생각뿐입니다.⁶⁶⁾

위의 내용에서 보이듯 1948년 경,⁶⁷⁾ 청주교도소를 3회 방문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청주 금천동 공동묘지에 묻혔던 백초월의 시신 인수를 한 주체는 김구하, 이종욱의 일행이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명인사로 표현된 그 이외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들이 시신을 인수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화장을 하였는지, 화장을 하였다면 그 유해는 어디에 뿌렸는지 등을 전혀 가늠할 수

66) 이 문건은 백초월 순국비석 제막식 당시(1991.6.1)에 제공되었다.

67) 청주교도소 명적계 부장인 김인식이 자필로 쓴 「백초월선생 유골 인도 확인」 문건은 1985년 3월 25일에 쓴 것이다. 그는 그 유골 인도를 위해 4~5인의 연로층 인사들이 탐방한 시점은 '1947, 8년 年頃 初夏'이라고 하였다.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백초월, 김구하, 이종욱에게는 독립의식이 동질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승려로서 독립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이었다. 이종욱(월정사 주지)은 임시정부로 망명하여 국내외를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백초월을 만났다.⁶⁸⁾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백초월을 월정사 강사로 초빙하였다. 김구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제작된 승려독립선언서 서명자이었고, 임정을 후원하는 독립자금을 백초월에게 제공하였다. 이런 역사를 공유한 김구하와 이종욱이 백초월의 시신을 인수한 것은 독립 지사들의 멋진 회향이었다.⁶⁹⁾

이와 같은 전후 사실에서 필자가 착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도사에서 백초월의 인연, 비사 등을 채록해야 한다. 둘째, 통도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백초월의 유품을 조사해야 한다. 현재 4점은 공개되었거니와,⁷⁰⁾ 이는 백초월과 인연이 있는⁷¹⁾ 석정의 수집 및 기증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도사 승려들이 3·1운동 직후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나선 계기와 전개 등을 백초월과의 연계 속에서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만해와의 연관에서만 찾았지만,⁷²⁾ 앞으로는 백초월의 관점도 투영시켜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민오와 양대웅이다.

68) 박희승,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대각사상』 15, 2002.

김광식, 「조선불교조계종과 이종욱」,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69) 박경훈은 김구하, 이종욱, 백초월은 같은 노선의 인물이라고 개진하였다. 백락귀의 ‘행적문건’ 참조.

70) 김광식, 『백초월』, 민족사, 2014, p.163.

김현권, 「일격과 안식의 예술 - 초월 동조의 서화」, 『3.1혁명과 백초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9, p.122.

『근세고승유묵』(법륜사 불일미술관, 1996), pp.26-27에 4점이 수록되어 있다.

71) 김광식,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7, p.187. 석정은 금강산 신계사에 백초월을 만났다.

72) 김광식, 「만해 한용운과 통도사」, 『불지광조 : 정인스님 퇴임기념 논총』, 2017.

박민오는 통도사 출신으로 서울에서의 3·1운동에 참가한 직후, 백초월이 관련된 『혁신공보』의 발간 및 보급 활동을 하였다.⁷³⁾ 양대응은 통도사 3·1운동을 이끈 주역인데 일제에 체포될 것을 피해 금강산, 보현사 등지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금강산 신계사의 법기암에 있는 바위에 ‘초월’과 ‘대응’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다.⁷⁴⁾ 이는 백초월과 양대응이 신계사 법기암에서 만났음을 뜻한다. 넷째, 승려독립선언서의 서술자가 백초월이라는 전제하에서⁷⁵⁾ 그 서명자인 김구하의 연관성을 재인식해야 한다.⁷⁶⁾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미세한 자료, 증언, 회고 등을 찾아서 역사 복원에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IV. 결어

본 고찰의 결어는 지금까지 개진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 백초월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강사로 보고, 지금까지 소홀하게 인

73) 황인규, 「중앙학교 박민오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30, 2018.

74) 김광식, 『백초월』, pp.164-165에 사진이 나온다. 이 사진은 당시 신계사에 머물렀던 체정스님(현, 동국대 정각원장)이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과스님(현, 조계종 종정)은 필자에게 구하스님이 백초월과 양대응에게 독립자금을 주었기에 함께 독립운동을 한 증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불교신문』 2010.3.24, 「근현대 선지식의 천진면목, 양만우」.

75) 그 서술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전하는 기록은 없다. 필자는 백초월로 추정한다.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p.66.

76) 김구하는 자호를 영축산의 ‘靈’을 따서 ‘靈山’으로 하였는데, 12명의 선인자는 모두 가명을 쓰기로 하였기에 ‘靈’ 대신 ‘鷲’자를 사용하기로 하여 ‘金鷲山’으로 선언서에 나온다. 박경훈,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p.162.

식된 각 강원에서의 활동을 보완하였다. 그는 벽송사(1907), 통도사(1914), 해인사 지방학림(1918), 옥천사 강원(1920년대 후반) 등의 활동이다. 그리고 한암, 만해의 구술에 나온 백초월의 강사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피력하였다. 그는 탁월한 경학 실력, 투철한 민족의식이다. 이런 전제에서 백초월은 강원 강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의식 고취, 독립 요원 발굴, 군자금 모집 등을 수행하였다.

둘째, 통도사에서 백초월 인연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백초월은 김구하와 친근한 연고로 1914년에 통도사 강사를 수행하였고, 구하와 함께 군자금을 모금했고, 성해(김구하 은사)의 회갑 기념 수연집(1914)의 서문을 작성하였고, 구하에게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지원받았고,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기인 『금강산 관상록』(1932)의 발문도 작성하였다. 특히 독립자금 지원 건은 그 당시에도 통도사의 구하 반대파, 일제 당국이 알고 있는 핵심 내용이었다. 그리고 백초월이 옥중 순국(1944)을 하자, 해방 직후 김구하는 이종욱과 함께 청주 공동묘지에 묻힌 백초월의 시신을 인수하였다. 이런 것은 백초월과 통도사, 김구하의 인연이 간단치 않았음을 즉 독립의식이 동질적이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셋째, 통도사에 산재되어 있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백초월의 자료, 비사, 인연담 등을 찾아서 역사에 활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도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의견 개진이 백초월, 근현대기 통도사 역사, 김구하 역사 등의 탐구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강산 관상록』, 영축총림 통도사, 1998.
- 『연화옥천의 향기』, 연화산 옥천사, 1999.
-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 2002.
-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一心教」, 『정토학연구』 16, 2011.
- _____, 『백초월』, 민족사, 2014.
- _____, 「백초월 독립운동의 성격」, 『전자불전』 19, 2017.
- _____, 「한용운의 만주행과 정신적인 독립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2017.
- _____,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옥천사」, 『마음사상』 15, 2023.
- _____,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대각사상』 37, 2022.
- _____, 「근현대, 용산불교 모색의 시론 - 항일운동, 불교근대화의 사례」, 『용산불교의 역사와 문화』, 동국대 출판문화원, 2023.
-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정신과 방향」, 『문학과 종교』 22-4, 2012.
- 김응철, 「구하 천보의 불교사상 고찰」, 『대각사상』 37, 2022.
- 박희승,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대각사상』 15, 2002.
- 이재수,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 사업」, 『정토학연구』 17, 2012.
- 송명호, 「태극기 문화재 활용방안 -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2012.
- 이동언, 「3·1운동직후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혁신공보』」, 『만해학보』 14·15, 2015.
- 한철호, 「진관사 태극기 형태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 최두현,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중원』, 담앤북스, 2023.

_____, 「통도사에서 독립 활동과 그 흔적」, 『동양한문학연구』 68, 2024,
정인관, 「3·1운동의 근거지로 북한산 진관사의 백초월스님의 행적」, 『광
장』 220, 2020.

이경순, 「1932년 통도사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대각사상』 37, 2022.

Abstract

Baek Chowol's Life and Tongdosa Temple

Kim, Gwang-sik
(Dongguk Univ, Professor)

This study describes the activities of Baek Cho-wol(백초월), who is considered an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Buddhist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ongdosa Temple. Until now, no attempt has been made to explore the transcendence of the White Moon from the perspective of Tongdosa Temple. So, I wrote this article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

First, the content and nature of instructor Baek Chowol's activities were summarized. Baek Cho-wol worked as a lecturer at Byeoksongsa Temple, Beomeosa Temple, Haeinsa Temple, Okcheonsa Temple, Donghaksa Temple, and Woljeongsa Temple. In this article, I also discovered the activities of instructors at Tongdosa Temple. Baek Cho-wol was outstanding in his ability to read scriptures, but what made him special was his sense of nationalism. He served as a lecturer to promot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scholars, secure independence funds, and discover independent agents.

Second, Baek Cho-wol left behind various histories at Tongdosa Temple. He was a lecturer in 1914, acquired independent funds at Tongdosa Temple, and had various relationships with Kim Gu-ha(김구하). In particular, Kim Gu-ha recommended Baek Cho-wol as a lecturer and had Baek Cho-wol write for the anthology of his teacher and his anthology of his trip to Mt. Geumgang. In addition, the body of Baek Cho-wol, which had been buried by the Japanese, was taken over from a cemetery near

Cheongju Prison.

Third, it emphasized the collection of data on the modern Buddhist independence movement scattered throughout Tongdosa Temple. Until now, the subject had been focused on the monks of Tongdosa Temple and Han Yong-un, but now they insisted on including Baek Cho-wol. The data will have to be a synthesis of documents, writings, testimonies, news articles, etc.

I hope that this article, written with the above focus, will be used to explore the history of Tongdosa in the modern era, the history of Baekchwol, and the history of Kim Gu-ha and Han Yong-un.

Key words

Baekchwol, Tongdosa Temple, Kim Guha, Han Yongun, Independence Fund, Gangwon, instructor

논문투고일 : '24. 9. 27. 심사완료일 : '24. 11. 27. 게재확정일 : '24. 11. 27.